

“아시아 문화 다양성 여행 함께 떠나요”

4-6월 ‘ACC 박물관 교육’... 전시·소장품·아카이브 연계 인도네시아 바틱 체험, 동아시아 출산의례 강의 등 ‘다채’

아시아문화박물관 전시, 소장품 및 아카이브를 연계한 다양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이 시시때때로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4-6월 아시아문화박물관 문화교육실에서 인도네시아 바틱과 동아시아 출산의례를 주제로 ‘ACC 박물관 교육’을 운영한다.

먼저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인도네시아 바틱’에서는 아시아문화박물관 상설전시 ‘문순으로 열린 세계: 동아시아의 항구도시’와 연계해 인도네시아 전통 염색기법인 바틱에 대해 알아본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아시아 공예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욕아카르타를 다녀온 이혜미, 오세린 작가가 함께한다. 인도네시아의 전통과 자연환경을 생생하게 담은 시간으로 구성했으며, 바틱 작품을 활용해 오브제도 만들어볼 수 있다. 워크숍은 4월11일, 5월9일, 5월23일, 6월27일 4차례 진행된다.

이어 아시아 출산의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생활문



2023 아시아 공예 레지던시 프로그램 워크숍 모습 <ACC 제공>

화를 느껴볼 수 있는 강의로 열린다. 동아시아 과거 전통문화와 근현대에 이르는 민간문화를 포함해 출산의례를 알아보는 의식주 문화와 생활용품에 대해 조명한다.

교육은 총 3회에 2023년 아시아플러시 연구진이 강사로 참여한다. 오는 16일에는 함안회 무형문화연구원장이 ‘성과 속의 세계를 넘나드는 출산의례’ 강의를 펼친다. 5월28일에는 김효경 한남대 중앙박물관 특별연구원이 ‘한국 출산의례와 설화 속 삼신이야기’를, 6월25일에는 한남수 선문대 교수가 ‘붉은 색의 두 얼굴, 중국의 출산의례’를 주제로 강의한다.

아시아문화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 후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문순으로 열린 세계’ 전시에서는 동남아시아 해상 실크로드에서의 교육과 문화교류, 항구도시에서 만들어진 고유한 문화 뿌리나간과 예술작품을 소개한다. 화려한 그림과 조각, 신성하고 초자연적 힘을 지닌 금속공예품, 열대의 문양을 품은 옷과 직물 공예, 자연에서 채득한 라탄 목공예 등 동남아시아 항구도시를 배경으로 그곳에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신화, 신앙, 집과 옷, 이색적인 일상용품도 만나볼 수 있다.

‘ACC 박물관 교육’ 참가비는 무료로, 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전당장은 “ACC는 일반 대중들이 아시아문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아시아문화박물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도시 공간 속 펼쳐지는 식물 이야기 9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전시

도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로 도로, 교량에 초점을 맞추고 자연이 일부라는 사실을 망각한다. 인간이 자연세계에 어떤 존재인지, 자연의 영향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식물의 형태로 질문을 던지는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리는 ‘도시 자연과의 대화’.

전시 기획은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입주 기획자로 초청된 폴란드 출신 올란타 보슈첸코 큐레이터가 맡았다.

전시에서는 한국과 폴란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참여 작가는 조은솔, 임현채, 신유구, 정영문, 체칠리아 말릭, 포트리 알바니, 토마스 에르조브스키, 보치에흐 자미아라 8명이다.

이 두 나라 예술가들은 사계절을 순환하는 자연의 강인함, 활력, 아름다움을 담은 결과물을 선보인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자연과 인류 세계 사이 새로운 연결을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193> 육십사괘해설: 54. 뇌택귀매(雷澤歸妹) 중

귀매괘 초구의 효사는 ‘귀매이제, 파능이 정길(歸妹以娣 跛能履 征吉)이다. 즉, ‘소녀가 소실로 출가한다. 정치보다 잘난 체하지 말고 다리를 저는 것처럼 밟아 나가면 번쁘고 길하다’는 뜻이다.

뇌택귀매	뇌수해

초효는 양위에 양효로 그 위가 바로고 기세가 강하나 구사와 정응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혼인이 아니다. 소녀가 시집을 가는데 정치의 신분

으로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언니가 시집을 가는데 임첩(媵妾) 즉 언니의 종 또는 첩으로 따라간다. 이러한 상황을 효사에서는 절름발이가 제대로 잘 걷는 사람의 뒤를 절뚝거리면서 따라가는 것과 같다(跛能履)고 비유하고 있다. 그래도 초효는 양강해 당당하게 나아가면 길하다(征吉).

이를 상전에서는, ‘소녀가 소실로 출가한다는 것은 항도(恒道)를 어기지 않았음으로 다리를 저는 것처럼 나아가면 길하다는 것은 서로 받들기 때문’이라고 해 ‘귀매이제 이항아 파능이길 상승야(歸妹以娣 以恒也 跛能履吉 相承也)’라고 말한다.

첩으로 시집가는 때로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매우 좋지 않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때이다. 초구는 양위에 양효가 있어 자리는 올바르니 항의 도는 지킬 수는 있다. 그러나 응효와 상응하지 못해 적처(嫡妻)가 아닌 첩의 신분으로 시집을 가니 지팡이에 의지해서 절름걸리는 겸양의 마음과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으로 적처(嫡妻)와 함께 남편을 섬긴다면 길은 얻는다. 이때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매우 좋지 않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시기이다.

점사에서 초구를 얻으면, 실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도, 지위를 얻지 못해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때이나 마음을 넓게 가지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고성을 불평하지 말고 자신이 이룬 공을 나타내 자랑하지 말 것이며, 모든 공을 다른 사람(嫡妻)에게 돌리려는 마음이 중요하고 이에 만족해야 한다.

운세, 운기 여하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바라지 않는다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바라는 바는 첫 번째로 바라는 것은 안되지만, 두 번째는 이뤄진다.

사업은 본업 보다는 부업이나 내직(內職) 쪽에서 이득이 있으나, 본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본업무를 부업으로 전향하면 안된다. 상거래, 교섭, 담판 등은 첫 번째 목표와 제 일등품을 바라지 말고 두 번째 목표나 이등품을 목적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주소, 거소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전(移轉)은 길하다. 혼인은 숨겨둔 이성이 존재하니 좋지 않다. 선처(先妻)를 잃은 후 후처(後妻)로 가는 경우라면 길하다. 잉태는 조산(早産)할 수 있고 유산(流産)을 조심해야 한다. 병은 생각보다는 중증(重症)이고 손을 빨리 쓰면 치유할 수 있다. 기다리는 것은 소식을 얻기 힘들고 가출인은 남에게 숨겨져 있어 돌아오기 힘들며 분실물은 찾기 힘들다. 낱씨는 희고 비가 온다.

‘모 관리의 운세 여하’를 입서(立書)해 귀매 초구를 얻고 점고하기를 “귀매에는 연못 위에 천둥이 치는 상이니 하괘 택(澤)은 아래로 하강하고 상괘 뇌(雷)가 위로 상승하는 것은 마치 태의 소녀가 진의 장남을 흡모해 입으로

“초구(跛能履), 구이(眇能視), 육삼(歸妹以須, 反歸以娣)”

<파능이>

장남에게 사랑을 호소하지만, 장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부정(不貞)한 여자가 스스로 남자를 도발하는 것을 귀매라 한다. 초구는 언니가 정실(正室)로서 가정을 주관하지만, 언니를 돕기 위해 몸종으로 따라간 동생이니 하는 일을 드러내지 못해 마치 절름발이가 혼자서 서지 못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다. 이를 ‘귀매이제 파능이’라 한 것이니 고생하고도 칭찬받지 못하고, 일을 잘해도 공이 없고 나타내지 못하는 때이다. 이것이 오히려 파멸되는 불행은 막을 수 있으니 정길(征吉)이라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귀매에는 천지(天地)가 서로 사귀지 못해 운이 막히는 때로서 초구의 때에는 여자가 정실(正室)로 시집을 가지 못하고 첩으로 시집가거나 언니의 몸종인 임첩으로 시집간다. 언니의 몸종으로 따라간 것이니 정직하게 열심히 매사에 임하더라도 자신을 자랑하거나 나타내지 말고 모든 공(功)을 언니에게 돌려야 쫓겨나지 않는다. 마치 잘 걸을 수 있지만 절름발이인 것처럼...

귀매괘 구이의 효사는 ‘묘능시 이유인지정(眇能視 利 幽人之貞)이다.

뇌택귀매	진위뢰

즉, ‘애꾸눈으로 본다. 유폐된 사람처럼 정도를 지키는 것이 이롭다’는 뜻이다.

이효는 음위에 양효로 양강하다. 중을

얻어 현명한 중용의 미덕을 갖춘 여인으로 육오와 상응(相應)하고 있으니 정치(正妻)의 상이다. 그러나 남편 육오는 양위에 음으로 음유(陰柔)하고 그 위가 바르지 않아 배우자로서 자신이 부족하고 구이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를 두 눈이 아닌 한 눈의 애꾸눈으로 보려 해도(眇能視)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실망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거나 정절을 훼손한다면 이는 더 큰 화를 초래하고 재앙을 부르는 격이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과 지조를 지키고 숨어사는 은자 유인(隱者 幽人)처럼 참고 견디면 이롭다(利幽人之貞)는 것이다.

상전에서는 ‘유폐된 사람처럼 정도를 지키기 이롭다는 것은 상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 ‘이유인지정 미변상야(利幽人之貞 未變常也)’라 말한다.

지금은 아내의 도리와 절조를 잘 지켜야 하는 때이다. 능력이 있어도 현재는 상황이 어려우니 참아야 할 시기로 육오의 때가 되면 해결된다.

구이의 효사에는 귀매(歸妹)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구이는 육오와 정응해 이미 정치의 상이 됐고 그러한 까닭에 시집가는 소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이 역시 육삼을 따라가 같은 남자를 섬기는 여동생(娣)이다.

그러나 구이는 중(中)을 얻어 덕(德)이 있는 자로 초구가 자신을 절름발이로 완전하지 못한 자로 스스로 부르는 것처럼, 구이도 이, 삼, 사의 호제(和劑)의 눈이어서 애꾸눈이라 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유폐된 유인(幽人)처럼 남편의 총애를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아 정욕(情慾)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마땅함을 잃지 않고 있다. 현재는 상황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되고 일이 이뤄진다. 지금은 잘 참는 것이 복이다.

<묘능시>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구이를 얻으면, 신용과 신임을 받고 있지만, 그로 인해 주변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때이다. 구이는 육오와 상응(相應)하지만 태(兌)의 주효가 아니기 때문에 물러서 가만히 있는 것이 무사(無事)를 지키는 방법이다.

운기도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가 아니다.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색난(色難)이나 불의(不義)의 놀랄 일을 경계해야 한다. 소망, 바라는 바 등은 지금은 시작할 때가 아니니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사업, 상거래 등은 육삼에 빠져 실패하니 소극적으로 확실한 것이 아니면 손대지 말아야 한다. 담판, 교섭 등도 일시적으로 이익이 있어도 나중에 해(害)가 되니 참아야 한다. 주소, 거소 등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골 등으로 귀향은 좋다. 혼담은 상대에게 숨겨둔 이성(異性)이 있을 수 있고, 강제로 성사(成事)시키면 이혼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잉태는 놀랄 일이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 병은 초기의 처치를 게을리 하면 중태 위중하고 치유가 어려워진다. 기다리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가출인은 동반자와 함께 멀리 가버렸으며 분실물은 누가 가져가 나타내지 않는다. 낱씨는 뇌명(雷鳴)이 울리고 변화가 심하며 맑아진다.

‘모 여인의 운세 여하’를 묻는 ‘실절예’에서 구이가 동한 귀매괘를 얻고 점고하기를, ‘귀매는 임첩으로 시집가는 때로 금년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유인(幽人)처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자신의 직분을 잘 지키고 조용히 정정(貞靜)의 도를 수행하면 무사를 얻어 갈다. 참고 견디면 내년에는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 실제로 숨어 칩거(蟄居)해 있다가 다음 해(六三)에 임첩으로 시집을 갔다. 육오의 때가 되어야 첩에서 정실로 시집갈 수 있고 하는 일이 이뤄진다. 병점에서는 귀매(歸妹) 괘패로 상육의 시기에 이르러 병을 다한다.

귀매괘 육삼의 효사는 ‘귀매이수, 반귀이제(歸妹以須, 反歸以娣)이다.

뇌택귀매	뇌천대장

즉, ‘소녀가 정실로 출가하고 싶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나아갔지만, 다시 돌아와 첩으로 시집을 가고 만다’는 뜻이다.

삼효는 양위에 음효로서 음유부정(陰柔不正)해 강직(剛直)하게 정절을 지키는 여인이 아니다. 부정의 효로 중용을 잃어 정절을 지키지 못했고 태괘의 주효가 돼 음분열락(淫奔悅樂)을 탐하는 여인이다. 육삼과 정응하는 효를 찾으려 하나 상육은 음효로 응효를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귀매이수(歸妹以須)라 말했다. 기다려도 응효를 만날 수 없으니 결국 집으로 돌아와 언니의 임첩으로 시집갈 수밖에 없다. 이를 반귀이제(反歸以娣)라 한 것이다.

이를 상전에서는 ‘소녀가 정실로 출가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음’이라고 해 ‘귀매이수 미당야(歸妹以須 未當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한다. 귀매는 시집가려고 하는 젊은 여자로서 어디까지나 정실로 시집가고 싶어하는 젊은 여성이다. 그리해 정실로 시집을 가보려고 이쪽저쪽을 기울이면서 기다려 보지만, 양위에 있는 음

효로서 음분(淫奔)의 열락(說樂)을 향유하는 여인에 불과하니 남들이 보기에는 천하게 보일 뿐이다.

결코 좋은 결과가 없으니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육삼은 태의 주효로서 정실로 시집을 가고자 하는 당사자이나 응효(應爻)도 없고 위치도 중(中)을 얻지 못해 정욕(情慾)에 빠지는 천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시집가서도 올바르게 집을 지킬 수 없어서 정치(正妻)로서 적당한 자가 아니다. 정치로서의 혼인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첩으로서 다시 시집을 간다.

육삼을 얻으면 자신의 분에 넘치는 육삼 욕망 때문에 인생을 망칠 위험이 많고, 그것을 깨닫고 본분을 지키려 해도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가 많을 때이다.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육삼을 만나면, 운기 등도 좋지 않고 남에게 아침하다가 오히려 천한 취급을 받으며 부당한 이득을 배려 받을 등 스스로 흥을 불러올 수 있으니, 자신의 분수를 알고 일탈(逸脫)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라는 바도 대단히 분에 넘치고 포기하려 나아가면 재앙을 입는다. 사업, 경영하는 일에서는 정도(正道)를 벗어나면 화액(禍厄)을 당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거나 이익 추구의 야망을 포기해야 한다.

교섭, 담판, 거래에서도 남을 속이려다가 들켜서 불리해지니 정도정순(正道正順)을 밟아야 한다. 주소, 거소에서도 어려움이 있음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혼인도 흉하다. 잉태는 어렵고 임신은 평산이나 산기(産期)가 빨리 온다. 병은 일시적으로는 쾌유하나 방심하면 항진(久進)해 악화된다. 기다리는 것은 이뤄지지 않고 가출인은 정사(情事)로 가출했으나 정치(正妻)로 맞이한다는 갑언(甘言)에 속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며 분실물은 찾기 힘들고 찾더라도 원래의 모양이 온전하지 않다. 낱씨는 맑아지나 때때로 비가 온다.

‘과년한 모 여인의 혼인 여하’를 물어 귀매괘 육삼을 얻은 ‘실절예’에서 점고하기를 ‘귀매에는 여자가 정실이 아닌 임첩으로 시집가는 때다. 육삼에서는 정치로 혼인하려고 시도하다가 돌아와 결국 첩으로 시집간다고 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큰 것을 바라면 성공하지 못한다. 정치로 시집을 가고자 한다면 호효를 만나야 하는데 지금부터 삼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모인이 유명인사로부터 소개를 받아 취직하고자 ‘이에 대한 취입가능 여하’를 문점, 입서해 귀매괘 육삼을 얻었다. ‘귀매에는 소녀가 장남에게 빠져 흘러 있지만 장남은 이것이 싫어 등을 돌리고 피하는 것과 비슷한 상이다. 육삼은 음이고 구사는 양인데 이제 육삼을 얻었으니 취직하려는 자는 육삼이고 구사는 취직을 부탁 받은 사람이다. 육삼은 소개서를 써준 친구의 도움으로 취직하려고 구사에게 부탁하고 있지만, 구사는 겉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지만, 내심은 등을 돌리고 있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귀매괘의 상이다. 효사에 ‘기다리고 기다리다 정실로 시집가려 했으나(歸妹以須), 결국 다시 돌아와 첩으로 시집을 가고 만다(反歸以娣)’고 했으니 ‘자신의 마음에 든 자리는 불가하고 작은 자리에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다’고 비유해 말해 줬다.



<동인도시계획학박사(062-654-4272)>